

艮齋 田愚와 艮齋學派 연구 현황 및 과제*

朴 鶴 來

(군산대 역사철학부 교수)

<目次>

1. 들어가는 말
2. 艮齋學에 관한 研究 概況
3. 艮齋에 관한 연구 현황
4. 艮齋學派에 관한 연구 현황
5. 향후 과제
6. 맺음말

<국문 요약>

본고는 근현대 한국 유학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중 한 사람인 艮齋 田愚(1841~1922) 및 그를 중심으로 한 문인 집단인 艮齋學派에 관한 연구 현황을 정리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간재 및 간재학파는 근대 이행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한국 유학의 맥락을 이루어왔으며, 지금도 그 학맥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학자 집단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지난 30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4S1A5B8063617)

년간 유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간재 및 그의 문인에 대한 연구 개황을 정리하고, 간재 및 간재학파를 대상으로 한 개별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적 특징을 검토한 후, 간재학파를 포함한 한국 근현대 유학에 대한 연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艮齋 田愚, 艮齋學派, 艮齋學會, 한말 도학, 한국 근현대 유학.

1. 들어가는 말

근현대 한국 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학자 중 한 사람은 艮齋 田愚(1841 ~ 1922)이다. 그를 중심으로 한 문인집단인 艮齋學派 또한 근대 이행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복을 위시한 전국 각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한국 유학의 맥락을 이루었고, 지금까지도 그 학맥이 이어지고 있다.

艮齋學¹⁾으로 요약되는 간재 및 간재학파 문인들의 학문과 사

1) 1989년 6월 출범하여 간재 및 간재문인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간재학회(舊 간재사상연구회)’와 2015년 창립한 ‘전북대학교 간재학연구소’에서는 아직까지 ‘간재학’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간재학회의 회칙에는 ‘간재 전우 선생의 도덕·학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유학의 체계화·현대화·대중화와 국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학회를 통해 발표된 금장태의 논문에서 간재학을 ‘간재의 학문과 사상 및 그의 문화를 통해 계승된 학풍을 통하여 성립된 것’(『韓國思想史에서 艮齋學의 位置』, 『간재학논총』 제1집, 1994, 34쪽)으로 정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간재학’을 ‘간재 전우 및

상은 근현대 한국 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이 근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현실과 만나고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재학 연구 현황의 정리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는 간재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을 반성하고, 발전적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현대 한국유학을 재구성하는 작업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간재학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현황에 대한 검토는 이전에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²⁾ 본고에서는 이전의 연구 현황 검토와 이를 통해 제시된 과제에 유의하여 또다른 연구 현황 분석 및 과제 제시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를 관통하며 한말 및 근대 이행기의 도학 계열을 대표하는 간재 및 간재학파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을 개괄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한 후, 이에 근거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³⁾

간재학파 문인이 제시한 학문과 사상 및 이와 관련한 활동 내용 일체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安在淳, 「良齋學派의 思想發展 歷程과 意義 -良齋學會의 研究成果를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9집, 2009.; 梁承武, 「最近 良齋學의 研究活動과 未來課題」, 『간재학논총』 제10집, 2010.
- 3) 본고는 2012년부터 전주대학교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에 유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이르는 호서—호남지역 유학자의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기 위해 유학—유학자 관련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를 진행하는 이 과제는 현재 간재학파 문인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DB화를 1차 완료하였다. 본고는 이 점에 유의하여 기존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간재학 및 근현대 유학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艮齋學에 관한 研究 概況

간재학 연구는 대체적으로 한국 유학 연구자, 특히 철학 분야 연구자에 의해 주도되었다. 經學이나 文學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간재 및 간재 문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대체적으로 그들의 性理說, 특히 理氣心性論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간재학 연구는 곧 간재 및 간재 문인들의 사상 연구라고 할 정도로 연구 분야의 편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⁴⁾

이러한 성리설 위주 연구 방향의 시단을 연 인물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어용 관학자로서 한국 유학 연구를 선도한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 ~ 1967)이다. 그는 1929년 「조선유학사에 있어서 주리파 주기파의 발달(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을 통해 간재를 ‘김창협 문파’의 계승자로 파악하고, 金炳昌에게 보낸 서한⁵⁾을 길게 인용·제시하면서 간재가 주기설을 비판한 사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⁶⁾ 이후 간재의 문인이자 조선사 편수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던 洪憲(1884 ~ 1935)는 1934년에 이

4) 간재학 연구의 편향성은 간재의 학문과 사상이 가지는 사상사적 위상과 관련이 있다. 간재는 한말 도학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였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안 성리설 논쟁을 주도했던 만큼 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성리설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5) 『艮齋先生文集』前編 卷1, 24b ~ 25a, 「與鳳岨金丈」(戊寅).

6) 高橋亨, 「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 『朝鮮支那文化の研究』,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第二部論纂 제1집, 1929년 9월. 이 논문에서 다카하시는 간재에 이르러 기호낙론의 학문적 성향이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영남학파의 한주 이진상과 합류한다고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르러 간재의 학문과 사상을 4회에 걸쳐 「田良齋先生學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⁷⁾

하지만 이 연구들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더구나 일제 어용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한 간재학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다카하시 도루가 조선 유학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主理와 主氣라는 편향된 도식은 해방 이후 한국유학 연구자들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도식 하에서 간재는 대체적으로 ‘折衷派’로 소개되었다.

玄相允(1893~?)의 『조선유학사』를 비롯하여 李丙燾(1896~1989)의 『한국유학사』, 裴宗鎬(1919~1990)의 『한국유학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재의 학문은 주리와 주기라는 도식적 이해 하에서 대체적으로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배중호는 간재를 율곡의 理爲氣主의 사상을 계승함으로 주리와 주기의 중간에서 절충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역시 일종의 주리론자가 된다고 평가하였지만,⁸⁾ 현상윤은 간재가 湖論의 대표적인 학자인 韓元震의 학설을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말 도학을 대표하는 奇正鎭(1798~1879), 李恒老(1792~1868), 李震相(1818

7) 洪憲, 「田良齋先生學案一般 上·中·下續」, 『靑丘學叢』 15·16·17·18, 靑丘學會, 1934. 이 논문은 간재에 대한 첫 개별 연구 성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인 홍희는 일제에 협력한 인물로서 간재학파에서 파문을 당하여 문인록에도 등재되지 못했다. 이 논문을 통해 홍희는 간재의 사상에 대해 “心本性의 중지를 세우로, 性師心弟의 법문을 주창하였으며, 배우는 자들에게 心宗氣學, 즉 심을 리로 파악하는 불교나 심주리를 주장하는 타학파를 따라서는 안됨을 분명히 알도록 하였고, 반드시 尊性復禮의 바른 궤도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이것이 그가 儒門에 대하여 공이 큰 점이다.”라고 평가하였다.(최영성, 『한국유학통사 하』, 483쪽에서 재인용, 일부 내용 수정)

8) 배중호, 『한국유학사』, 연세대출판부, 1987, 158쪽.

~ 1886)의 주리설을 여지없이 배척하고 공격한 점을 거론하여 ‘절충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⁹⁾

위와 같이 한국 유학의 통사료 저작을 통해 간재의 학문과 사상이 어느 정도 소개되었지만, 간재를 포함한 한국 근대유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1980년대 이전까지 미미하였다. 일례로 1970년대 초중반 한국철학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국철학사 편찬 사업에 따라 처음 결실을 맺은 학회 차원의 통사료 저작인 『한국철학연구 상·중·하』(1977, 1978)와 후속 작업을 통해 간행된 『한국철학사 상·중·하』(1987)에서 간재를 위시한 한말 도학자들은 전혀 소개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소개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었다.

1980년대 말까지 이어진 간재학에 대한 학계의 제한된 관심은 기본적으로 연구의 기반이 되는 『良齋集』¹⁰⁾을 비롯한 간재학 관련 문집을 열람하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세 차례에 걸쳐 간행된 『간재집』은 1980년대까지 국립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특정 대학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열람이 불가능하였으며, 설령 어렵게 도서관을 통해 자료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내용 확인에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간재학 연구는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1984년부터 『간재집』이 속속 影印되어 연구자들에게 보급되면서 간재학 관련 텍스트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연구 활성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¹¹⁾

9)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음사, 1986, 406쪽.

10) 『간재집』 간행과 관련된 내용은 梁基正, 「『간재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참조.

이에 더하여 대중 매체를 통한 한국 근대 유학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1980년대 당시 성균관대에 재직 중이던 琴章泰 교수와 한국경제신문의 高光植 기자가 한말 도학자 관련 자료의 검토와 더불어 현지답사를 통해 <한국경제신문>에 한말 도학자 관련 기획 기사를 연재하였고, 한말 도학자 52명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여 『儒學近百年』(1984)으로 출간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말 도학자 및 애국계몽사상가 25명을 추가로 소개한 『續儒學近百年』(1989)을 간행하면서 한국 근대 유학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근대유학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편향된 인식이 어느 정도 교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간재를 위시한 한말 도학자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금장태의 두 저작을 통해 간재의 학문과 사상이 소개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간재의 직전 제자인 顧齋 李炳殷(1877~1960), 惠泉 成璣運(1877~1956), 蒼樹 鄭衡圭(1880~1957), 裕齋 宋基冕(1882~1956), 陽齋 權純命(1891~1974), 玄谷 柳永善(1893~1961), 그리고 재전제자 月軒 李普林(1903~1974) 등이 소개되었으며,¹²⁾ 간재의 스승인 鼓山 任憲晦(1811~1876)과 문인 石農 吳震泳(1868~1944), 欽齋 崔秉心(1874~1957), 後滄 金澤述(1884~1954), 그리고 재전 문인인 誠堂 朴仁圭(1909~1976) 등도 일반에 알려졌다.¹³⁾ 특히 금장태는 「한말도학의 사상사적 조명」을 통해 한말 도학의 사상사적 역할과 현대적 의의를 제시하여

11) 각주 98) 참조.

12) 금장태·고광직, 『유학근백년』, 박영사, 1984.

13) 금장태·고광직, 『속유학근백년』, 여강출판사, 1989.

근대유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도모하는 한편, 한말 도학을 계보화하고 그 흐름을 학파별로 개관, 간재학파를 비롯한 한말 도학파의 이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¹⁴⁾

간재학 관련 문헌의 보급과 한말 도학에 대한 관심은 ‘艮齋思想研究會’의 창립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6월 3일 성균관 명륜당에서 열린 연구회 창립 모임에서 참석 회원들은 ‘간재 선생의 학문 도덕을 추모 선양하고 선생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국학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고,¹⁵⁾ 이듬해 6월 2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제1회 간재사상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도하의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으며, 특히 한 신문에서는 “조선 유학의 마지막 양심”이라는 제하에 학술대회를 자세히 소개하여 간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였다.¹⁶⁾ 이후 간재사상연구회는 한 차례 더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고, 발표 논문을 학술지 『艮齋思想研究論叢』에 수록하여 두 차례(1994, 1998)에 걸쳐 간행하였다.

간재사상연구회는 2002년 1월에 ‘간재학회’로 개편되었으며, 규모 있는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 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술지 제호도 『艮齋學論叢』으로 변경하여 간행하고 있으며,¹⁷⁾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연구

14) 금장태, 「한말도학의 사상사적 조명」, 『유학근백년』, 박영사, 1984, 1~13쪽.

15) 간재사상연구회, 『간재사상연구논총』 제1집, 1994. 간재사상연구회의 초대 회장은 서예가 宋成鏞이 맡았고, 재정적 후원은 鄭華永 이사장이 도맡아 초기 운영을 책임졌다.

16) 경향신문, 1990년 6월 8일자

17) 2006년까지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던 『간재학논총』은 2015년까지 19집이 간행되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반년 간으로 간행되는 등 발전적인 학회지로 발돋움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성과를 학술지에 담아냄으로써 간재학의 구체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재학회는 최근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연구 성과물을 단행본으로 간행하고 있다.¹⁸⁾

한편, 개별 연구자들의 간재학 연구도 1980년대 말부터 활성화되었다. 간재학회가 주도하는 기획 연구와 학술 발표가 간재학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학문적 관심을 통해 이룩된 개별 연구자들의 간재학 연구 성과도 무시 못 할 정도로 성장하여 왔다.

논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88년 간재의 성리설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연구가 제출된 이래,¹⁹⁾ 2016년 현재까지 250여 편에 이르는 간재학 개별 연구 성과가 학계에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간재에 대한 연구는 150여 편에 이르고, 간재 문인에 대한 개별 연구를 포함한 간재학과 연구는 100여 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²⁰⁾

이렇듯 다양한 간재학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최근에 간행된 유학 통사류 저작, 특히 조선 유학사와 관련된 저작에서 간재학

18) 간재학회가 간행한 『良齋學派의 學文과 思想 : 欽齋·裕齋·顧齋·三齋를 중심으로 1』(서울 : 良齋學會, 2013)은 전주지역의 간재 문인을 집중 조명한 것이며, 『良齋先生의 學問과 思想 I』은 간재의 生平處世, 사상사 위치, 경세사상, 역사사회사상, 그리고 간재학의 발전방향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간재학논총』에 수록했던 14편의 논문을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19) 성백효, 「良齋의 性理說에 대한 小考」, 『민족문화』 8, 1988. 같은 해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대만학자 蔡茂松이 「田良齋의 性師心弟論」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 총 250여 편에 이르는 간재학 관련 개별 연구 성과 중 간재학회가 주도한 연구 성과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180여 편에 육박한다. 그만큼 간재학 연구는 간재학회가 중심으로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은 이전의 저작과는 다르게 서술되고 있다. 한국 유학의 통사료 저작에는 반드시 간재를 포함하여 서술되고 있으며,²¹⁾ 간재학을 포함한 근현대 한국 유학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국학진흥원이 기획하여 출간한 『韓國儒學思想大系』의 ‘철학사상’ 편(2005)에서 ‘호남’이라는 지역을 매개로 간재의 성리 사상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은 이전의 서술방식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통사료 저작에서는 지역의 구분에 주목하지 않았고, 설사 지역의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호와 영남으로 대별하여 호남 유학은 기호 유학의 일부로 포함하거나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기존의 서술 방식과 달리 간재 및 간재학과와 더불어 노사 기정진과 그의 문인들을 「한말 호남 유학계의 성리사상과 현실대응」이라는 별도의 항목 하에서 다루었다.²²⁾

한편, 간재학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간재학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논문이 꾸준하게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논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처음으로 간재의 ‘性師心弟說’을 분석한 논문이 제출된 이래,²³⁾

21) 河謙鎭(1870~1946)의 『東儒學案』을 번역한 『(증보) 동유학안 : 한국유학자 167인의 생애와 사상』(나남, 2008)를 간행하면서 증보한 15명의 기호 계열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간재가 포함되었다. 최영성의 『한국유학통사』에서도 간재는 「조선 성리학의 結局」으로 평가되어 곽종석과 함께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통사료 저술에서는 아직도 간재를 도외시하거나 거론하더라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름만 거명하기도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고 3장 참조.

22) 한말 도학의 특징 중 하나가 학파 분화이고, 그 학파가 지역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술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간재학과와 경우, 그 문인 분포나 활동 영역이 호남이 중심을 이루지만, 동시에 호남에만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간재학과 관련한 석사학위논문이 총 7편이 제출되었다.²⁴⁾ 박사학위논문은 간재의 학문과 사상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간재의 心論과 明德說 연구」²⁵⁾에 한정되지만, 간재의 학문과 사상을 부분적이지만 비중 있게 분석한 논문은 3편에 이른다.²⁶⁾ 비록 퇴계학이나 율곡학, 그리고 다산학 등 한국 유학의 중심을 이루는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박사학위논문이 적지만, 근현대 한국 유학 전공자가 극히 제한적인 학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학문 후속세대의 간재학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저변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간재학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외국 학자의 학술논문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²⁷⁾ 그동안 한국 유학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더구나 한말 도학자에 대한 연구 저변이 국제적으로 조

-
- 23) 안동교, 「良齋의 性師心弟說과 復性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1. 이 논문은 같은 제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호남문화연구』 21 (1992)에 수록되었다.
- 24) 김중석, 「간재 성리사상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96.; 최진울, 「良齋의 性理學 研究」, 圓光大學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맹현주, 「良齋 田愚의 性理學에 관한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1.; 신세라, 「鄭淳萬(1876~1911)의 생애와 민족운동」, 仁荷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2.; 서정호, 「良齋 田愚의 性師心弟說에 대한 研究」, 國民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4.; 양교식, 「良齋 田愚의 『大學記疑』에 對한 研究」,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5) 유지웅, 「간재의 심론과 명덕설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26) 이상호, 「朝鮮性理學派의 性理說 分化에 關한 研究 : 19世紀 朝鮮性理學派의 性理說 分化를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4.; 신하영, 「朝鮮 性理學者들의 天理人欲觀」, 승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이종우, 「寒洲學派와 良齋學派의 心性論爭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4.
- 27) 간재학 관련 외국학자의 논문은 30여 편을 상회한다. 일부 논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논문은 간재학회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것이다.

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간재학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연구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다만, 외국 학자들의 간재학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대부분이 자발적인 학문적 관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간재학회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간재학의 국제적 관심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²⁸⁾

간재학과 관련된 단행본 출간은 매우 미진하다. 이종우의 박사학위논문 「寒洲學派와 艮齋學派의 心性論爭 研究」이 『19·20세기 한국성리학의 심성논쟁』(2005)으로 출간된 것을 제외하고는 간재학과 관련된 단행본은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간재학회에서 『良齋學派의 學文과 思想 I』(2013)과 『간재 선생의 학문과 사상 I』(2014)을 간행하였지만,²⁹⁾ 이 두 단행본은 이미 발표된 논문을 모은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비매품으로 간행되어 연구자나 일반이 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간재학 관련 문집에 대한 번역서 간행된 미미하여

28) 논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9년 11월에 열린 「간재학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대만 및 일본 학자를 중심으로 간재학에 관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고, 발표 논문 숫자도 30편을 상회한다.(구체적인 발표 논문에 대해서는 『간재학논총』 제3~19집 참조.) 간재학회가 요청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자발적인 연구를 통해 발표된 외국인 학자의 논문은 대만 학자 채무송의 「전간재의 성사심체론」(『제5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과 간재 문인이었던 홍희를 다룬 다나카 류지의 「兼山 洪熹 유학사상과 일본유학관·역사관 東遊日冊」을 중심으로(『지역과 역사』 4, 1997)로 확인된다.

29) 『良齋學派의 學文과 思想 I』(2013)은 2009년부터 4년간 학술대회를 통해 집중 조명한 전북의 三齋(欽齋 崔秉心, 顧齋 李炳殷, 裕齋 宋基晷)와 관련한 발표 논문 17편을 엮어 간행한 것이고, 『간재 선생의 학문과 사상 I』(2014)는 1990년 이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간재 관련 논문 14편을 모아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각각 편집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후원을 받아 출간한 것이다.

전북대 BK21 중(한)문고전적 번역대학원이 중심이 되어 간재의 『中庸記疑』를 번역한 『(조선 최후의 성리학자) 간재 전우, 『중용』을 탐구하다』(심산, 2010)이 간재학과 관련된 유일한 번역서이다.

3. 간재에 관한 연구 현황

1) 성리설에 관한 연구

주지하다시피 간재는 조선 성리학을 총결하는 위치에 서 있는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다. 李恒老와 奇正鎭 등 한말 도학을 주도한 주요 학자들과 달리 뚜렷한 사승 관계를 통해 기호 낙론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목할 만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다. 그는 20대 후반이 이미 「理氣說」, 「陰陽說」 등을 저술할 정도로 일찍부터 학문적 입장을 구체화하였으며, 四端七情論爭을 비롯하여 호락논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등 전대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체계화하였다.

아울러 그는 華西學派와의 심설 논쟁을 필두로 한말 도학계열의 주요 학파와 학설 논쟁을 진행하였다. 특히 그는 율곡으로부터 비롯된 기호학계의 리기심성론에서 이탈하여 리의 능동성을 강조한 화서학과 및 노사학파의 리기심성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기하며 학설 논쟁을 이끌었으며, 낙론계 성리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기한 淵齋 宋秉璿(1836 ~ 1905) 등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도 반비판을 전개하는 등 논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는 寒洲 李震相이 제기한 ‘心卽理說’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비판을 가

하는 등 지역과 학파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학설 논쟁을 진행하였다.

간재는 일련의 성리 논쟁을 거치면서 주자학에 대한 면밀한 탐구와 기호 낙론의 성리설에 대한 계승에 기초하여 자신의 특징적인 성리학적 입장인 ‘性師心弟’, ‘性尊心卑’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의 특징적인 성리설은 그가 생존했을 때는 물론, 그의 사후에도 기호학계와 영남학계에 걸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간재의 성리학은 율곡으로부터 비롯되어 기호 낙론을 거쳐 한말 도학에 이르는 하나의 계통적 논의이며, ‘성사심제’로 요약되는 그의 특징적인 성리설은 이러한 계통적 논의의 종결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간재가 지속적으로 전개한 타 학파 학설에 대한 비판과 이에 따른 학설 논쟁은 기호학계의 계통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된 조선 성리학의 결국적 논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간재의 성리학 및 이와 결부된 그의 활동은 학설 자체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사상사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논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국 유학 연구자들은 일찍부터 간재의 성리학에 주목하였다.³⁰⁾ 그간 간재 성리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리기, 심성 등 성리학적 주제에 대한 그의 입장뿐만 아니라 조선 성리학의 핵심 논쟁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한 그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성리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 성과는 기본적으로 간재의 성리학적 입장이 다양한

30) 간재 성리학에 대한 개별 연구논문은 60편을 상회한다. 그만큼 간재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그의 성리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제에 걸쳐져 있었던 점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재 성리학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성은 스승이 되고 심은 제자가 된다.’는 간재의 특징적인 ‘性師心弟說’이었다. 간재학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발표된 성리학 관련 연구 중에서 대다수의 논문이 그의 성리설 중 ‘성사심제설’에 주목하였으며,³¹⁾ 이러한 관심은 ‘성사심제설’을 둘러싼 영남계열 학파와의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³²⁾

간재와 기호 낙론 계열에서 이탈한 화서학파와의 심설 논쟁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 이어져 양자 간의 구분되는 입장이 검토되었으며,³³⁾ 율곡의 리기론에 대한 이해와 계승의 차이와 더불어 인성과 물성의 동이에 대한 기정진의 학설에 대한 간재의 비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간재와 노사 문인들의 논쟁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었다.³⁴⁾ 학문적 연원을 달리하는 기호학계의 타

-
- 31) 1980년대말 본격화된 간재에 대한 개별 연구는 성리설 가운데 그의 대표적인 학설인 ‘성사심제’에 주목한 것이 대부분이다. 주 18)에서 언급한 성백효와 채무송의 논문 이외에 오종일의 「性師心弟說의 성리학사적 의의」, 이상호의 「간재 전우의 성리설」(이상 『간재학논총』 제1집, 1994) 등 초기 연구도 성사심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며, 그의 성리학에 주목한 최근 연구도 ‘性師心弟’에 주목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간재의 성리학에서 ‘성사심제’와 이와 연관된 ‘心本性’, ‘性尊心卑’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 32) 금장태, 「심즉기설의 쟁점과 간재의 심설 논변」, 『한국 유학의 심설』, 2002.; 이종우, 「寒洲學派와 良齋學派의 心性論爭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4.
- 33) 김근호, 「柳重教와 田愚의 心說論爭에 대한 研究 -논쟁에 나타난 心說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28, 2007.;李宗雨, 「良齋學派와 華西學派의 思想同異와 特徵」, 『간재학논총』 제10집, 2010.; 장숙필, 「良齋와 華西學派의 心說論爭의 핵심 쟁점과 그 의미」, 『율곡사상연구』 제27집, 2013.
- 34) 安晋吾, 「良齋 哲學思想의 特徵 - 蘆良論爭을 中心으로」, 『石堂論叢』 16, 1990.; 崔英辰, 「良齋 理氣論의 基本 入場 - 「猥筆辨」과 「納涼私議疑目」을 中心으로」, 『간재학논총』 제1집, 1994.; 정병련, 「간재의 「남당사의」 비판에 대한 노백현의 재비판」, 『간재학논총』 제2집, 1998.; 朴鶴來, 「蘆沙學

학과 학자들과의 논쟁에 관한 연구도 제출되었으며,³⁵⁾ 간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학술 논쟁 전반을 기호학계 학설 분화라는 각도에서 조명한 연구도 발표되어 한말 도학계의 학설 논쟁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심이 반영되었다.³⁶⁾

한편, 간재가 주목했던 異說에 대한 비판, 특히 육왕학 계열에 대한 비판을 검토한 연구도 제출되어 주자학의 전통을 수호하려는 간재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밝혀지기도 하였으며,³⁷⁾ 연구 성과가 충분히 쌓이지는 않았지만 당대 도학 계열에서 이탈한 개신 유학자들이 주목한 梁啓超(1873 ~ 1929)를 비롯한 당대 이설에 대한 간재의 비판에 대해서도 試論的 연구들이 잇달아 제출되고 있다.³⁸⁾

최근에는 간재 성리학에 대한 연원적 검토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
- 派의 理氣論 : 田愚의 노사설 비판에 대한 鄭載圭의 반비판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19, 2002.; 이상익, 「良齋 田愚의 이설 비판과 그 의의」, 『한국 철학논집』 16, 2005.; 박학래, 「奇正鎮의 性理說을 둘러싼 기호학계의 논쟁 : 「狼筆」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48, 2008.; 楊祖漢, 「良齋와 蘆沙의 狼筆論辨」, 『간재학논총』 제8집, 2008.; 박학래, 「毅菴 柳麟錫의 「納涼私議疑目講辨」에 대한 一考」, 『汎韓哲學』 52, 2009.; 김낙진, 「奇正鎮과 田愚 성리학적 쟁점과 鄭載圭의 성리설」, 『南冥學研究』 29, 2010.
- 35) 林玉均, 「良齋 田愚와 醒菴 李喆榮의 性理思想의 同異와 特徵」, 『간재학논총』 제14집, 2012.; 楊祖漢, 「良齋學派와 淵齋學派의 思想同異와 特徵」, 『간재학논총』 제11집, 2011.
- 36) 金蓬坤, 「19세기 畿湖學界의 學說分化和 論爭」, 『유교사상문화연구』 39, 2010.; 이영자, 「개항기 전후 호서유학자의 학맥별 갈등양상과 그 성리학적 근거」, 『儒學研究』 30, 2014.
- 37) 김세정, 「간재 전우의 육왕심학 비판」, 『울곡사상연구』 27, 2013.; 김세정, 「간재 전우의 이단 비판의 기준과 근거」, 『유학연구』 29, 2013.; 楊祖漢, 「良齋對陽明心學의 詮釋 — 以<陽明心理說辨>爲中心」, 『간재학논총』 제17집, 2014.
- 38) 金建佑, 「한말 유학자의 위기의식과 근대문명 담론 비판」, 『유교사상문화연구』 61, 2015.; 陽朝明, 「간재의 梁啓超 문화관념에 대한 전석」, 2015년 간재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5.

있다. 간재 성리학의 근원이 되는 주자학과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구 이외에 간재가 존경했던 퇴계, 간재 학문의 연원이 되는 율곡에 대한 간재의 입장과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도 제출되었다.³⁹⁾ 아울러 간재 성리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일 끼친 기호 낙론계 선배 학자들과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도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⁴⁰⁾ 호론계 학자와의 비교 연구도 제출되어 간재 성리학의 연원에 대한 다층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⁴¹⁾

-
- 39) 이상호, 「朱子學의 思维構造 속에서 바라본 良齋의 인간 존재의 문제」, 『간재학논총』 제3집, 2000.; 윤용남, 「良齋哲學의 淵源의 考察 - 退·栗理氣說을 中心으로」, 『간재학논총』 제4집, 2004.; 鍾彩鈞, 「朱子와 良齋의 倫理思想-氣개념을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6집, 2007.; 朱建民, 「朱子와 良齋의 理氣思想-간재의 氣質本體淸粹說을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6집, 2007.; 李東熙, 「良齋의 朱子退溪栗谷의 性理說에 대한 해석 - <雜著> 『晦退栗 3선생의 설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15집, 2013.; 蔡家和, 「田良齋對朱子與栗谷理學的承繼發」, 『간재학논총』 제15집, 2013.; 宋志明, 「良齋對朱子心學的詮釋」, 『간재학논총』 제15집, 2013.; 藤井倫明, 「良齋對朱子思想的繼承發展及其思想特徵 - 以理氣心性論爲探討中心」, 『간재학논총』 제17집, 2014.; 이상익, 「간재의 율곡 이이 학술사상의 계승발전」, 2015년 간재학국제학술회의, 2015.
- 40) 吳鍾逸, 「朝鮮朝性理學의 洛論과 良齋性理學의 특징」, 『간재학논총』 제11집, 2011.; 「良齋와 巍巖 李柬의 思想同異와 特徵 - 人性物性同異와 未發心體善惡을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13집, 2012.; 金文俊, 「良齋 田愚의 尤庵 學術思想 계승」, 『간재학논총』 제17집, 2014.; 李宗雨, 「良齋의 梅山 學術思想에 대한 계승발전」, 『간재학논총』 제17집, 2014.; 이종우, 「간재의 우암 송시열 학술사상의 계승발전」; 박학래, 「간재의 미호 김원행 학술사상의 계승발전」; 진병욱, 「간재의 근재 박윤원 학술사상의 계승발전」; 양조한, 「간재의 노주 오희상 학술사상의 계승발전」(이상 2015년 간재학국제학술회의, 2015)
- 41) 楊祖漢, 「良齋와 遂菴 權尙夏의 思想同異와 特徵」, 『간재학논총』 제13집, 2012.; 田炳述, 「良齋와 南塘 韓元震의 思想同異와 特徵 - 「天命之謂性」장과 「生之謂性」장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13집, 2012.

2) 處世觀 및 시대 인식과 대응에 관한 연구

간재 연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된 주제 중 하나는 일제 강점기에 보여준 간재의 처세 및 이와 연관된 그의 시대 인식 및 대응 등이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적인 접근은 3·1 운동 이후 영남 및 호서 지역의 유림 대표들이 조선의 독립을 청원한 이른바 ‘파리장서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그의 처세와 평가, 그리고 해방 이후 일부 저작에서 제시된 그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평가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간재는 을사늑약(1905)이 체결되자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상소를 올렸고, 宋秉璿의 殉國과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 그 숭고한 義烈을 기렸으며, 자손과 문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천명하는 등 뚜렷한 항일 의식을 보여주었다. 경술국치(1910) 이후 일제의 지배가 본격화되자 간재는 서해의 孤島로 들어가 생애를 마칠 때까지 식민지 땅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배일의식을 고취하였다. 이후 영남의 郭鍾錫 등이 주축이 되어 파리장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 간재는 당초 수락할 의사를 가지고 문인을 보내는 등 국권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마침내 夷狄과 同事하는 혐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고 거절하였다.

국난의 위기와 일제 강점기에 처하여 유림이 보여준 실천적 의병 활동과 항일 운동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된 간재의 처세는 당대에 이미 논란이 되었으며, 해방 이후 보다 논란이 구체화되었다. 金昌淑(1879~1962)이 일제에 항거하다 급서한 金丁鎬(1882~1919)의 묘갈명을 쓰면서 간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창숙과 간재 문인 사이에 날선 비난이 오고 갔다.⁴²⁾ 이 사건 이외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현상윤의 『조선유학사』에서 간재를 ‘腐儒’로 혹평한 것이었다. 현상윤은 이 저술을 통해 “그(간재) 말은 공리공론에 불과하고, 실천 실행에는 하등의 공헌과 업적이 없었다.”⁴³⁾고 지적하고, 결국 그의 말을 ‘腐儒의 망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1980년대 말까지 이어져 일부 유학통사에서도 반복되기도 하였다.⁴⁴⁾

간재 생존 당시부터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간재에 대한 날선 비판과 혹평은 간재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아니며, 간재학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간재학회 창립 이후 열린 첫 학술대회(1990)에서부터 현상윤의 간재 평가에 대한 반론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었고,⁴⁵⁾ 이 과정에서 간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당대 유학자들의 언급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⁴⁶⁾

이후 간재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는 간재에 대한 현상윤의

42) 이영호, 「心山과 良齋 門人들의 出處是非論爭을 통해 본 일제하 유교지식인의 초상」, 『大東漢文學』 42, 2015.

43) 현상윤, 『조선유학사』, 409~410쪽.

44) 유명중, 『조선후기성리학』, 이문출판사, 1988, 577쪽.

45) 宋河璟, 「良齋의 生涯와 思想」, 『간재학논총』 제1집, 1994.; 金基鉉, 「良齋의 處世觀과 守道意識」, 『간재학논총』 제1집, 1994.; 琴章泰, 「韓國思想史에서 良齋學의 位置」, 『간재학논총』 제1집, 1994.

46) 西山 金興洛의 문인이자 파리장서에 서명하였던 省齋 權相翊(1863~1934)의 간재 평가, 간재의 문인인 玄谷柳永善(1893~1961), 淵齋 宋秉璿의 동생인 心石齋 宋秉珣(1839~1912), 그리고 勉菴 崔益鉉의 아들 崔永祚의 간재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俛宇 郭鍾錫의 간재 평가 등이 제시되었다. 宋河璟, 위의 논문, 1994 참조. 간재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한국 유학의 통사류 저작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 (최영성, 『한국유학통사 하』, 456~457쪽 참조)

평가를 의식한 내용이 연구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⁴⁷⁾ 그리고 최근에는 현상윤의 간재 평가를 대상으로 그 표리적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도 제출되어 간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이끌고 있다.⁴⁸⁾

아울러 간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체로 그가 택했던 自靖의 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관심은 그가 택했던 자정론으로 모아졌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도 제시되었다.⁴⁹⁾ 일제하의 민족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양식의 하나로 전우의 자정론에 주목하여 시대 인식과 대응책, 출처관과 자정론의 실천 등을 검토한 역사학 분야의 연구가 제시되었으며,⁵⁰⁾ 역사의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自靖의 길로 나아간 간재의 시대정신을 검토한 연구도 발표되었다.⁵¹⁾ 국권상실과 도학의 위기라는 이중적 난제 하에서 道脈 보존을 위한 간재의 선택이 자정론이었다고 규정한 연구,⁵²⁾ 의리사상과 처세관을 尊華攘夷의 의리론과 守道論의 처세관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⁵³⁾ 간재

47) 간재에 관한 연구 논문은 일정 부분 현상윤의 간재 평가에 대응하는 측면이 다분하다. 그의 성리설을 검토하는 연구에서조차 간재에 대한 혹평을 의식한 내용이 일정 부분 제시될 정도로 현상윤의 평가는 간재학 전체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48) 李炯性, 「玄相允의 ‘良齋評’에 대한 表裏的 측면 攷察」, 『간재학논총』 제17집, 2014.

49) 그의 성리설이나 문학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의 시대 인식 및 대응을 연계하여 검토할 정도로 그의 처세에 대한 논란은 간재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곽진, 「간재 詩學의 그 특징 - 의리론 전개를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2집, 1998.; 宋寅昌, 「良齋 田愚의 哲學과 現實認識」, 『哲學論叢』 34, 2003. 등 참조.

50) 성대경, 「보수유림의 자정론과 외세대응양식—간재 전우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5, 1990.

51) 趙南旭, 「良齋의 歷史認識과 時代精神」, 『간재학논총』 제6집, 2007.

52) 郭稹, 「良齋의 守道論의 現實의 展開」, 『간재학논총』 제7집, 2007.

의 출처를에 대한 연원으로서 퇴계, 남명, 율곡의 출처를 비교 검토한 연구⁵⁴⁾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간재가 택한 ‘자정’의 길이 자신의 몸만 깨끗이 하려는 선택이 아니었으며, 유학의 진리를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여러 갈래의 선택 중 하나였다는 대체적인 평가가 부각되고 있다.

한편, 그의 시대 인식과 관련하여 간재가 제시한 경제사상, 정치사상, 사회교육사상 등도 검토되었다.⁵⁵⁾ 이 연구들은 대체로 간재의 사상이 보수적인 측면이 드러나지만,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당대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한 측면이 없지 않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3) 經學, 禮學 및 文學에 관한 연구

간재의 학문적 관심은 성리설 이외에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특히 그는 유학 경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만년에 이르기까지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大學記疑」, 「中庸記疑」, 「讀論語」, 「讀孟子」 등 수많은 경학 관련 저작을 남겼다. 이에

53) 도민재, 「『秋潭別集』에 나타난 良齋의 義理精神」, 『간재학논총』 제4집, 2004.

54) 박양자, 「田良齋의 出處觀에 관한 一考察」, 『간재학논총』 제4집, 2004.

55) 黃俊淵, 「良齋의 經世思想에 대한 考察」, 『간재학논총』 제1집, 1994.; 최근덕, 「良齋의 政治思想」, 『간재학논총』 제3집, 2000.; 서원화, 「良齋의 社會教育思想 初探」, 『간재학논총』 제3집, 2000.; 朴鶴來, 「良齋의 社會인식과 비판정신」, 『간재학논총』 제6집, 2007.; 張學智, 「朱子와 良齋의 經世思想」, 『간재학논총』 제6집, 2007.; 吳光, 「良齋歷史精神의 繼承과 發展」, 『간재학논총』 제10집, 2010.

따라 한문학 연구자들은 간재의 경학에 관심을 기울였고, 1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이 발표하는 성과를 일구어 간재의 경학 연구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다.

간재의 경학에 대한 연구들은 간재 경학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⁵⁶⁾ 『논어』에 대한 경학적 입장을 분석한 연구,⁵⁷⁾ 『맹자』 해석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⁵⁸⁾ 『중용』 해석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⁵⁹⁾ 『대학』 해석의 특징적 면모를 분석한 연구⁶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간재 경학 연구를 통해 간재 경학의 특징으로는 타 학자와 비교될 정도로 광범위한 자료의 섭렵과 인용, 그리고 간재 성리설과 경전 내용의 밀접한 관계성 등이 부각되고 있다.

간재 경학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의 예학에 대한 연구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간재의 예학 사상 전반을 다룬

-
- 56) 蔡方鹿, 「朱子와 良齋의 經學思想 - 繼承과 發展을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6집, 2007.; 鄭燾源, 「간재의 도학자적 역사의식과 경학(經學)」, 『간재학논총』 제9집, 2009.; 傅武光, 「良齋의 朱子經學思想에 대한 繼承發展 - 良齋 論語講說의 朱子 論語集註에 대한 보충」, 『간재학논총』 제11집, 2011.
- 57) 김영호, 「전간재 경학사상 고찰 - 論語說을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2집, 1998.; 김영호, 「조선시대 유학자 논어설의 특징—퇴계, 성호, 다산, 간재설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6집, 2002.; 金映鎬, 「良齋 田愚의 論語說考」, 『동양문화연구』 2, 2008.
- 58) 金庚坤, 「良齋 田愚의 『孟子』해석의 특징—『讀孟子』를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16집, 2013.
- 59) 권정안, 「간재의 경학사상 - 『中庸記疑』를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2집, 1998.; 김유곤, 「간재 전우의 『중용』 해석의 특징」, 『동양철학연구』 65, 2011.; 김정희, 「『중용』의 儒家圓敎 의리위치에서 본 간재의 『四書講說』 전석—「중용기의」 분석을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18집, 2014.
- 60) 양교식, 「良齋 田愚의 『大學記疑』에 對한 研究」,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黃瑩暖, 「良齋의 『四書講說』 詮釋—「大學記疑」의 ‘明德」을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17집, 2014.; 소현성, 「간재 전우의 『大學記疑』 - 考—경전해석상의 외연적 특징을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19집, 2015.

試論的 연구 2편⁶¹⁾과 良齋가 종법문제를 증시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朱子の 『家禮』와 「良齋禮說」의 종법사상을 비교 검토한 연구, 『良齋禮說』의 「焚黃就墓」을 검토한 연구⁶²⁾ 등이 예학 연구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간재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예학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이 분야의 연구가 간재학회를 통한 기획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 연구자 개인의 자발적인 학문적 관심에 의해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간재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詩, 傳, 記文, 序跋文 등 『간재집』에 수록된 장르별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⁶³⁾ 『간재집』에 수록되지 않은 많은 시를 담고 있는 『白山先生風雅』에 대한 연구는 간재 시 작품의 전모를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⁶⁴⁾ 간재 문학 연구 중 주목되는 것은 간재가 가졌던 여성에 대한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⁶⁵⁾ 이 연구는 문학 장르에 기초한 연구를 뛰어넘어 내

-
- 61)李文周, 「良齋의 禮說」, 『간재학논총』 제1집, 1994.; 都民宰, 「良齋의 禮學思想」, 『간재학논총』 제9집, 2009. 이 두 편의 논문 중 이문주의 연구는 간재의 예에 대한 견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학 연구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학사상 연구는 단 한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62) 孔祥林, 「『良齋禮說』의 「焚黃就墓」考說」, 『간재학논총』 제19집, 2015.
- 63) 羅鍾善, 「간재 전우의 「오서 五經吟」에 대한 고찰」, 『동방한문학』 34, 2008.; 羅鍾善, 「良齋 田愚의 ‘傳’에 대한 文藝的 考察」, 『동방한문학』 36, 2008.; 나중선, 「良齋 田愚의 哲理詩 研究」, 『동방한문학』 45, 2010.; 나중선, 「良齋 田愚의 ‘書簡文’에 나타난 義理精神과 抗日意識 考察」, 『동방한문학』 43, 2010.; 나중선, 「良齋 田愚의 記文 研究」, 『동방한문학』 51, 2012.; 나중선, 「良齋 田愚의 序跋文에 나타난 世敎와 道本文末에 대한 考察」, 『東方漢文學』 62, 2015.
- 64) 이병찬, 「간재 전우의 시 연구」, 『어문연구』 54, 2007.; 나중선, 「良齋 田愚의 『白山先生風雅』 研究」, 『동방한문학』 48, 2011.

용에 주목한 것이면서 동시에 전통과 근대와의 만남 속에서 유학자들의 의식 변화에 유의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문학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간재의 문학 사상을 주자의 그것과 비교한 연구⁶⁶⁾와 간재의 시학을 의리론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⁶⁷⁾도 발표되었다.

4. 간재학파에 관한 연구 현황

1) 개별 문인에 대한 연구

간재 문인에 대한 개별 연구는 대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다. 그리고 일련의 연구를 통해 검토된 문인은 대략 40여 명에 이른다. 2016년 현재까지 생애 및 사상, 학문 활동을 중심으로 검토된 간재 문인은 다음과 같다.

炳庵 金駿榮(1842~1917), 老柏齋 崔命喜(1851~1921), 誠庵 李裕興(1859~1923), 說齋 蘇學奎(1859~1948), 魯菴 趙弘淳(1860~1931), 惟夢 鄭寅昌(1862~1928), 滄菴 朴魯重(1863~1943), 蒙養齋 鄭泰恒(1865~1938), 石農 吳震泳, 愚山 韓 愉(1868-1911), 翼齋 高在鵬(1869~1936), 畏堂 高漢柱(1871~1959), 觀瀾 鄭觀海(1873~1949), 澹山 河祐植(1875~1943), 敬石 任憲瓚(1876~1956), 欽齋 崔秉心(1874~1957), 鳳岡 曹 埰(1876~1945), 惠泉

65) 황수연, 「한말 도학파의 여성담론 - 艮齋 田愚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2014.

66) 徐兴无, 「朱子와 艮齋의 文學思想」. 『간재학논총』 제9집, 2009.

67) 곽진, 「艮齋 詩學의 그 특징 - 의리론 전개를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2집, 1998.

成璣運(1877~1956), 顧齋 李炳殷(1877~1960), 蒼樹 鄭衡圭(1880~1957), 裕齋 宋基晁(1882~1956), 兼山 洪 憲(1884~1935), 新菴 田溶珪(1884~1962), 致軒 田烈(1886~1941), 務實齋 南軫永(1889~1972), 飛泉 田璣鎮(1889~1963), 石汀 文濟衆(1890~1949), 陽齋 權純命(1891~1974), 玄谷 柳永善(1893~1961), 龍巖 李徽在(1893~1944), 有菴 李厚林(1893~1972), 荷堂 鄭憲泰(1894~1974), 月潭 金載石(1895~1971), 敬菴 崔愿(1896~1943), 絅齋 鄭然國(1898~1970), 謙齋 鄭瓘錫(1901~1982), 月軒 李普林(1903~1974), 柯菴 田元植(1907~1981), 精菴 李太絃(1910~1942), 剛菴 宋成鏞(1913~1999), 瑞巖 金熙鎮(1918~1999), 仙菴 朱秉禮(?~?)

간재 문인에 대한 개별 연구는 대체로 간재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를 통해 이루어졌다.⁶⁸⁾ 金駿榮을 비롯한 직전 제자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李普林, 宋成鏞 등 재전제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는 등 개별 문인에 대한 연구는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개별 문인들이 1천 5백여 명을 상회하고, 재전 및 삼전 제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5천여 명을 넘는 간재학과의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개별 문인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문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간재의 학문과 사상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전개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일제강점기에도 타 학파와의 학설 논쟁을 전개했을 만큼 간재학파는 당대 어느 문인집단보다 학문적 동질성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문인들이 보여준 학문적 성격도 학파 전체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으며, 학문적 성격은 창의적이라기

68) 간재학과 관련 개별 연구 성과 100여 편 가운데 66편의 논문이 간재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보다는 스승의 학문을 묵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문인의 학문에서 간재 학설에 대한 발전적 측면이 보이기는 하지만,⁶⁹⁾ 대체적으로 새로운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 폐쇄적 면모가 두드러지는 것이 간재 문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⁷⁰⁾

간재 문인에 대한 개별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그들의 처세와 의리론이었다. 간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재 문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들의 처세에 대한 입장과 이와 결부된 의리사상의 전개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간재 문인들은 지속적으로 스승의 출처관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에 무게를 두었으며, 간재의 自靖論을 계승하여 강학 및 교육 활동에 매진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⁷¹⁾

간재학회에서 주도한 대개의 연구가 개별 문인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개별 문인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주제나 분야에 주목한 연구들도 속속 발표되었다. 지역과 연계하여 개별 문인의 특징적 면모를 검토한 연구,⁷²⁾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별 문인의 학문적 특성을 검토한 연구⁷³⁾ 등은 향후

69) 마진탁, 「炳庵 金駿榮 학문의 繼承性和 獨立性」, 『간재학논총』 제3집, 2000.

70) 安在淳, 「良齋學派의 思想發展 歷程과 意義 - 良齋學會의 研究成果를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9집, 2009. 28쪽. 이 논문은 『간재학논총』에 발표된 간재 문인에 대한 논문 21편을 분석 정리하였다.

71) 安在淳, 위의 논문 참조.

72) 李明洙, 「근대전환기 전주 교동 李炳殷의 경세론 - 수시 변혁의 지역적 실천론」, 『간재학논총』 제11집, 2011.; 李錫麟, 「韓末儒學者 滄菴 朴魯重의 생애와 學派 - 1920세기 초반 淸州儒林의 동향에 대한 試論」, 『간재학논총』 제8집, 2008.

73) 林玉均, 「고재(顧齋) 이병은(李炳殷)의 學問과 思想 - 고재의 性理論과 실천적 學問論을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제10집, 2010.; 李宗雨, 「顧齋 李炳殷의 성리사상—心性의 主宰와 人物性偏全을 중심으로」, 『간재학논총』

개별 문인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별 문인에 대한 연구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특정한 관점을 통해 개별 문인의 학문적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간재학의 연속과 불연속의 관점을 채택한다거나 신학과 구학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⁷⁴⁾ 등은 향후 개별 문인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관점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간재학회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학술기관이 주도한 학술사업이나 학술대회를 통해 간재 문인의 사상과 활동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전주시청의 의뢰에 따라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BK사업단이 전주의 한옥마을에 대한 스토리텔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2007~2008)에서 간재 문인인 欽齋 崔秉心, 顧齋 李炳殷, 裕齋 宋基晷에 대한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으며, 관련 학술대회도 개최되기도 하였다.⁷⁵⁾ 전주역사박물관이 주최한 전주학 학술대회(2008)을 통해 금재 최병심의 삶과 학문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기도 하였다.⁷⁶⁾ 경상대 남명학연구원에서 기획한 ‘의령의 인물과 학문’을 통해 의령 지역의 간재문인을 대표하는 飛泉 田璣鎮(1889~1963)의 생애와 학문이 소개되었으며,⁷⁷⁾ 다른 기획

제13집, 2012.; 金賢壽, 「玄谷 柳永善의 禮學思想—四禮提要를 中心으로」, 『간재학논총』 제17집, 2014.

74) 張炳漢, 「有菴 李厚林의 學問과 思想 -良齋學의 連續과 不連續의 觀點에서」, 『간재학논총』 제14집, 2012.; 張炳漢, 「顧齋 李炳殷의 漢詩 文學論 - 20세기 西學(新學)에 대한 儒學(舊學)의 對應과 恢復의 觀點에서」, 『간재학논총』 제15집, 2013.

75)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연구』 제2집, 2008 참조.

76) 전주역사박물관, 위 논문집 참조.

연구를 통해 의령에 세거하는 담양전씨의 간재 문인 17명이 소개되기도 하였다.⁷⁸⁾

한국학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학술적 관심이 반영된 개별 문인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개별 문인의 생애 및 학문을 개괄하기 보다는 특정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연구가 대체를 이루어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간재학회 차원에서는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일제 관변학자 홍희에 대한 일련의 연구⁷⁹⁾는 일제하 유림의 전체상을 밝히고 독립운동사 연구의 비교 관점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觀瀾 鄭觀海(1873 ~ 1949)가 1912년부터 1948년까지 약 35년간 저술한 24권 분량의 한문 생활일기인 「觀瀾齋日記」를 분석한 연구⁸⁰⁾는 향후 정치사, 경제사, 농업사, 일제침략사, 교육사, 풍속사, 유학사 등 다양한 미시적 차원에서의 검토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華嶋淵源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을사늑약 이후 각종 학회와 학교 건립에 간여한 계몽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克菴 崔在學의 『實地應用作文法』과 『文章指南』을 분석한 연구⁸¹⁾,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피살당한 鄭淳萬(1876 ~ 1911)에 대한 일련의 연구⁸²⁾ 등은 간재학과의 분화와 연

77) 문정우, 「飛泉 田璣鎮의 생애와 詩世界」, 『남명학연구』 33, 2012.

78) 허권수, 「의령(宜寧)의 학문적 전통과 특징」, 『연민학지』 20, 2013.

79) 다나카 류지, 「겸산 홍희의 유학사상과 일본유학관·역사관-『동유일초』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1997.; 구사회, 「새로운 가사 작품 洪熹의 「永言」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49, 2014.

80) 소인호, 「일제하 근기 지식인의 삶과 사유, 『관란재일기』」, 『한국학연구』 25, 2006.

81) 남궁원, 「개화기 글쓰기 교재 『實地應用作文法』과 『文章指南』 연구」, 『한문고전연구』 12, 2006.

82) 신세라, 「鄭淳萬(1876 ~ 1911)의 생애와 민족운동」, 仁荷大學教 大學院 석

관하여 향후 간재 문인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재와 전주 지역의 문인 欽齋 崔秉心, 顧齋 李炳殷, 裕齋 宋基冕으로 대표되는 三齋의 행적과 학문을 통해 당대 지식인의 고뇌와 지적 편린을 고찰한 연구,⁸³⁾ 집안의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로 엮은 玄谷 柳永善(1893 ~ 1961)의 『규범요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⁸⁴⁾ 등도 향후 개별 문인 연구의 차별적 면모를 부각하는 하나의 전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밖에 강우지역의 간재 문인들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⁸⁵⁾는 자칫 전북 내지 호남에 편중된 문인 연구의 편향성을 상쇄하고, 나아가 간재 문인들의 다양한 학문적 성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학과 전반에 대한 연구

학과 전반을 여러 측면에서 조망하는 연구와 간재학과를 중심으로 전개된 학과 간 학설 논쟁에 대한 연구 등도 간재학과 연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사학위논문, 2002.; 박결순, 「沿海州 韓人社會의 갈등과 鄭淳萬의 피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2009.; 한규무, 「을사조약 전후 상동청년회의 민족운동과 정순만」, 『중원문화연구』 16·17, 2011.

83) 이천승, 「간재 전우와 그 문인들의 문화자존의식—전주 한옥마을 ‘三齋’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24, 2008.

84) 김기림, 「유영선의 『규범요감』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2014.

85) 尹浩鎭, 「『汾陽樂府』의 編纂過程과 形式」, 『南冥學研究』 5, 1995.; 李義康, 「澹山 河祐植의 生涯와 思想」, 『남명학연구』 25, 2008.; 오이환, 「『晉陽誌』의 출판」, 『동방학지』 155, 2011.; 문정우, 「愚山 韓楡의 『汾陽樂府』에 드러난 現實認識과 士意識의 志向」, 『영주어문』 21, 2011.; 문정우, 「愚山 韓楡의 詩世界와 士意識」, 『동방한문학』 52, 2012.

주지하다시피,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에 걸친 한말 도학의 흐름 속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 하나는 학파의 종장으로 부각되는 중심 학자의 강학활동에 따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인집단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⁸⁶⁾ 근대 이행기를 관통하며 형성되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다양한 학파들은 대내외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현실 대응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성리와 의리의 일관 체계 하에서 학파 간 학설 논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한말 도학파의 지형과 활동에 유의하여 간재 문인록인 『화도연원록』 중 직전 제자의 명부인 「관선록」을 분석하여 지역별 문인 분포를 정량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제시되었다.⁸⁷⁾ 개별 문인 연구에서 벗어나 학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를 통해 간재학파가 전라 지역에 국한된 문인집단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인집단임이 확인되었으며, 간재학파의 학문적 연원, 학통 의식 등도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되었다.

간재학파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제출되어 간재 나이 40대 이후 충청, 경상, 전라 등을 순회하며 수시로 열린 강회를 통해 간재학파가 구체화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간재학파의 특징은 간재 문인들의 講學

86) 근대이행기의 도학 계열 학파들은 대체적으로 특정한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다. 화서학파의 경우는 경기를 중심으로 강원과 충청으로 영역을 확대하였고, 연재학파는 충청을 중심으로 영남과 호남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노사학파는 전남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지역까지 그 세력이 뻗었으며, 간재학파는 전북을 기반으로 전국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장태, 「한말 도학의 사상사적 조명」, 『유학근백년』, 4~6쪽.

87) 朴鶴來, 「良齋學派의 學統과 사상적 특징 : 學問淵源, 交遊 및 門人 分布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28, 2007.

과 守義로 점철한 삶이며, 타 학파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이고 엄격성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는 평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⁸⁸⁾

간재학파의 문인 분포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일부 착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간재학의 본거지인 전북 지역의 간재 문인을 지역별로 세분하여 정량적으로 정리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전북 지역의 간재 문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를 통해 일제에 저항적인 활동을 보였던 문인을 비롯하여 애국계몽단체에 참여한 문인, 그리고 정부 수립 후에 정계 및 교육계 등에서 활동한 문인 등 전북을 연고로 한 간재 문인들의 활동이 소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962년 『화도연원록』 편찬 이후 중단된 간재 학맥 찾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심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에 맞는 학맥 정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⁸⁹⁾

이밖에도 간재학파의 중요 활동 무대 중 하나였던 강우 지역의 간재 문인들의 활동을 분석한 연구도 제출되어 호남 일변도의 간재학과 이해에 또 다른 면모를 부가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간재학과 문인으로 韓愉, 河祐植, 鄭衡圭, 田璣鎮, 李厚林, 權龍鉉, 李普林 등의 지역 내 활동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⁹⁰⁾

한편, 간재에게서 비롯되어 간재학과 문인에게로 이어진 타 학파와의 학설 논쟁도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아 여러 연구 성

88) 李相昊, 「간재학과 성리학의 지역적 전개 양상과 사상적 특성」, 『국학연구』 15, 2009.

89) 崔英成, 「全北地域 良齋學派의 學脈 繼承과 義理 實踐」, 『간재학논총』 제 12집, 2011.

90) 문정우, 「19~20세기 江右 지역 良齋 門人의 文藝 창작과 內涵」, 『동방한문학』 61, 2014.

과로 이어지고 있다. 간재의 화서 비판 이외에 심설을 둘러싼 간재학과와 화서학과 간의 학설 비교를 다룬 연구가 발표되었으며,⁹¹⁾ 20세기 초반 『蘆沙集』 重刊 계기로 본격화한 간재의 노사학설 비판에 대한 논쟁도 간재학과와 노사학파의 사상 동이라는 학파 간 학설 비교로 이어지기도 하였다.⁹²⁾

학설 논쟁에 대한 간재학과에 대한 면모는 寒洲學派 및 俛宇學派와의 논쟁 연구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간재의 寒洲 心說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되어 간재의 性師心弟에 대한 한주 및 면우 문인들의 비판과 간재 문인들의 반비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양 학파 사이의 쟁점으로 부각된 朱子 晩年定說, 知覺說, 主宰說, 心統性情說 등에 대한 양 학파의 입장과 주장이 검토되었다. 아울러 한주의 嫡傳으로 평가받는 俛宇와 그의 문인과 간재학과 문인 간의 심설 논쟁도 폭넓게 검토되어 을곡을 계승한 간재학과와 퇴계의 영향권 내에서 성장한 한주 및 면우 문인 간의 학설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⁹³⁾

91) 이종우, 「良齋學派와 華西學派의 思想同異와 特徵」, 『간재학논총』 제10집, 2010년 2월.

92) 楊祖漢, 「良齋學派와 蘆沙學派 思想同異와 特徵」, 『간재학논총』 제10집, 2010. 하지만 이 연구는 학파 간 사상 동이에 초점을 맞추었다기 보다는 노사와 간재의 학설 비교에만 논의가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93) 이종우는 박사학위논문 제출을 전후하여 간재학과와 한주학파의 학술논쟁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들은 박사학위논문에서 수록된 내용도 있지만, 양 학파 간의 의리실천에 관한 논쟁 등 박사학위논문에서 수록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종우, 「주희만년정설 논쟁에 관한 연구 -이진상학과와 전우학파의 논쟁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14, 2003.; 「寒洲學派와 良齋學派의 主宰說 논쟁과 그 평가」, 『동양철학』 22, 2004.; 「한주학과와 간재학파의 의리실천에 관한 논쟁」, 『한국철학논집』 15, 2004.; 「韓國儒學史 분류방법으로서의 主理·主氣 개념에 관한 비판적 연구 : 李震相學派와 田愚學派의 論爭에 關連하여」, 『東洋哲學研究』 36, 2004.; 「李震相學派와 田愚學派의 知覺說 論爭」, 『東洋哲學研究』 37, 2004.; 「寒洲學派와 良齋學派의 心統性情說 論爭과 그 의의」, 『東洋哲學

하지만 간재학파와 한주 및 면우학파의 학설 논쟁을 다룬 일부 연구에서는 학파 연구를 표방하면서도 학설논쟁의 발단이 되는 간재와 한주, 면우의 심설의 동이점에만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여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⁹⁴⁾ 이밖에도 간재학파와 연재학파 간의 학설 논쟁을 검토한 연구도⁹⁵⁾ 제시되어 기호학계의 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한말 도학의 학설논쟁을 율곡 리기설 계승의 분화라는 각도에서 검토한 연구,⁹⁶⁾ 서학이라는 외래 사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각도에서 여러 학파들의 학설을 분석한 연구⁹⁷⁾ 등도 제시되어 학파 연구의 포괄적인 접근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5. 향후 과제

1) 연구 자료의 집적 및 체계화, 그리고 번역

간재학 연구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간재집』의 定本化 작업을 비롯하여 각종 문집 자료들의 집적 및 체계화를 우선하여 진

研究』 42, 2005.; 「간재학파와 한주학파의 논쟁에서 비판논리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43, 2011.

94) 蔡家和, 「艮齋學派와 寒洲學派의 思想同異와 特徵」, 『간재학논총』 제10집, 2010년 2월. ; 林月惠, 「艮齋學派와 俛宇學派의 思想同異와 特徵」, 『간재학논총』 제10집, 2010년 2월.

95) 楊祖漢, 「艮齋學派와 淵齋學派의 思想同異와 特徵」, 『간재학논총』 제11집, 2011년 2월.

96) 박학래, 「조선말기 기호학파의 율곡 이기론 계승과 분화」, 『율곡학연구』 6, 2003.

97) 金蓬坤, 「19세기 畿湖學界의 學說分化和 論爭」, 『유교사상문화연구』 39, 2010.

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 환경의 변화와 연구 방법의 다각화에 발맞추어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화 작업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간재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간재집』은 총 3종이 간행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⁹⁸⁾ 일제 강점기라는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간재의 학문과 사상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간재 문인들의 노력이 『간재집』의 간행으로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문인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3종이라는 각기 다른 판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과 일반 대중이 접하는 간재학의 기본 텍스트는 판본에 따라 그 순서와 체제가 다르고, 각각의 판본 내에도 일정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⁹⁹⁾ 비록 일부 착간과 오류를 수정하여 영인본이 발간되었

98) 현재 유통되고 있는 3종의 간재 문집은 1) 1924년 7월에 문인 金澤述, 崔秉心 등이 간재의 文稿를 筆寫하여 보관했던 華島手定本, 2) 1926년 10월에 문인 吳震泳, 金楨鎬 등이 晉州에서 活字로 문집을 간행한 晉州本, 3) 1927년에 문인 李仁槩, 宋毅燮 등이 論山 龍洞에서 木板으로 간행한 龍洞本을 가리킨다. 華島手定本은 1984년에 이르러 김택술의 아들 金炯觀이 亞細亞文化社를 통해 「田愚全集」으로 影印되었는데, 이 영인본에는 「良齋私稿」 29책 이외에 1940년 김택술이 편찬한 연보와 화도수정본에 누락된 글과 刪削된 글을 모아 編次한 拾遺 4권이 추가되어 있다. 진주본은 1984년에 保景文化社에서 「良齋先生全集」을 影印하였는데, 이 영인본에는 1929년 7월에 時諱에 저촉되어 진주본에 수록하지 못했던 글을 4권 2책으로 편차하여 上海에서 간행한 「秋潭別集」을 비롯하여 「良齋禮說」, 「良齋尺牘」과 附錄(年譜, 家狀, 觀善錄 등)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용동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 중앙도서관, 李仁槩의 曾孫 李炳天 家에 소장되어 있는데, 충남대 도서관에서는 1999년에 이병천 소장본을 「良齋先生文集」이라는 이름으로 영인하였는데, 柳永善이 편찬한 年譜와 문인들이 지은 祭文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문집총간 332~336집으로 영인하여 간행하고,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고 있는 판본은 용동본이다.

99)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문집총간의 하나로 『간재집』을 영인하면서 어느 정도 바로잡았지만 착간이나 오류가 수시로 발견된 바 있다. 이 영인본의 해제에 따르면, 前編 권3의 제81판과 제82판이 錯簡되어 있어 있었

지만, 3종의 판본에 대한 체계나 내용에 대해 정확한 校勘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연구 과정에서 혼선을 부추길 수 있고, 연구 내용의 불일치를 낳을 개연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간재집』에 대한 판본 및 문헌 연구, 그리고 정확한 교감을 통한 정본화가 요청된다.

『간재집』의 한글 번역본 간행은 연구자들의 연구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재학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다.¹⁰⁰⁾ 그리고 『간재집』 번역에 앞서 판본 정리 및 정본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번역의 확실성, 표현의 적절성, 그리고 주석의 정확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번역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공신력 있는 학술기관을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 작업과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재의 학술적 관심이 어느 학자보다 폭넓다는 점에 주목하여 번역진 구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번역의 질 제고를 위해 교열과 윤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간재학과 문인들의 문집 집적과 체계화, 그리고 미간행 문집의 발굴 작업도 요청된다. 문집을 남긴 간재의 여러 문인들의 자료가 일정 정도 간행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고, 前編 권6의 제83판은 卷次가 '五'로, 後編續 권1의 제33판은 板次가 '五十三'으로 각각 誤記되어 있었으며, 後編 권7의 제79~91판은 모든 板次가 誤記되고, 前編續 권4는 판차 '七十六'이 누락되어 있었다.

100) 2010년에 이미 『추담별집』의 번역작업이 거의 완성되어 곧 출판될 것이라는 간재학회 양승무 회장의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 결실을 확인할 수 없다. 양승무, 「최근 간재학의 연구활동과 미래과제」, 『간재학논총』 제10집, 2010.

체계 안에 묶어내는 작업은 미진한 상태이다. 더구나 일부 문인의 문집은 미간행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검토하지 못한 간재 문인에 대한 후속 연구를 비롯하여 간재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간재 문인들과 관련된 텍스트의 체계화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라 하겠다.

『간재집』을 비롯하여 간재학과 문인들의 문집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화 작업도 필요하다. 한국고전 전적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한국고전번역원>을 비롯한 여러 학술기관을 통해 이루어져 『간재집』 텍스트에 대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간재와 관련된 각종 역사기록 및 관련 자료 등은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미 간재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한 곳에 집적되지 못하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문인들의 문집에 대한 디지털화는 아직 구체화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⁰¹⁾ 따라서 간재학 관련 자료에 대한 DB 구축 및 디지털 자료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간재학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간재집』 원문 이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체계적인 설계와 후속 작업이 요청된다. 단순 사실의

101) 간재학 연구의 중심인 간재학회나 최근 본격 가동한 전북대 간재학연구소의 홈페이지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인 점에 비추어 간재학 관련 학술 자료에 대한 DB화 및 디지털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확인 차원에서 벗어나 전문 연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의 가공 및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¹⁰²⁾ 연구자 이외의 일반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재집』 정본화를 비롯한 자료의 집적 및 체계화, 그리고 디지털화는 특정한 연구자 개인이 작업을 시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 개인이 이러한 작업과 전혀 무관한 것만도 아니다. 연구자 개인들의 깊이 있는 관심이 모아지고, 이와 더불어 지난 20여 년간 간재학 연구를 주도한 간재학회와 최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전북대 간재학연구소, 그리고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 등 전북지역 유학 연구를 주도하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등 학술기관이 협업하여 보다 체계적인 구상과 접근을 이루어낸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102) 일례로 전주대 근현대유학사업단에서 구축 중인 「근현대 유학자들의 사회관계망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특정학파의 학자들에 대해 성명(한글/한자), 자, 호, 시호, 생몰년, 출생지, 거주지, 분묘지, 스승, 활동지역, 저서 등 기본 정보 이외에 특정 인물과 관계된 관계 정보로서 관계 유형, 관계 형성자, 그리고 관계 형성자 사이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 관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출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체계를 구도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아래에서 현재 『간재집』의 서한 전체를 비롯하여 간재 문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서비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분석 및 자료수집」(2012년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연구계획서), 2012.; 박학래, 「사회관계망과 한국 유학 연구」(『윤곡사상연구』 26, 2013) 등 참조.

2) 연구 주제의 다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재 및 간재 문인에 대한 연구는 한국 유학 연구, 특히 철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성리학 중심이라는 연구의 편향성을 낳고 있다.¹⁰³⁾ 한국유학사에서 간재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편향성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편향성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간재학 연구는 같은 내용의 반복, 즉 간재가 제시한 사상 관련 언설을 되풀이하여 제시하고 해석하는 것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사상 위주의 연구 편향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와 분야로 연구 관심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어야 간재학 뿐만 아니라 간재학을 포괄하는 근현대 한국 유학의 내용과 실체가 온전하게 규명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간재 및 간재 문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간재학 연구도 최근 연구 성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주제의 탐색을 통해 그 외연을 확장하고, 특히 시공간을 축으로 다양한 주제에 접목하는 방법론적 전환을 통해 연구 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자료에 대한 집적과 분석을 통해 한국 근대 유학이 가지는 내용적 위상과 역할을 밝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연구 주제의 다변화는 자연스럽게 연구 분야의 확대로 이어질

103) 간재학 연구성과를 담아내고 있는 『간재학논총』에 실린 연구논문 가운데 극히 일부 논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논문은 모두 사상과 관련된 연구물이다.

것으로 예상된다. 철학에 편중된 연구에서 다양한 주제로의 연구 관심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역사학, 문학, 사회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의 연구는 향후 학제간 연구로 연결되어야 간재학의 내용적 함의와 역할 등이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주제의 확대와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근대전환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학 계열 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대응 양상에 대한 검토이다. 이 시기에 접어들어 이미 시대의 중심사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유학과 유학의 담지자인 유림들은 서양 근대와의 만남과 식민 지배라는 이중적 과제 하에서 다양한 인식과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한국 유학의 현재를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현대를 거치면서 유림의 분화는 가속화되었으며, 현실 대응의 면모도 더욱 다변화되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인상 비평’과 같이 정형화된 사회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다층적인 시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현재적 의미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제까지의 성리설 연구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간재에 대한 연구 성과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리설 연구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 내용의 검토와 이에 따른 생산적 논의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간재 연구의 내용을 검토하면 쟁점으로 부각된 주제나 엇갈리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개인이나 학회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주목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예를 들어 간재의 性師心弟와 주자학의 心統性情의 관계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의 이해와 해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고, 이에 대해 특정 연구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자나 학회에서는 이에 주목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았다.¹⁰⁴⁾ 이러한 연구 내용에 대한 무관심 내지 방관은 간재학의 실제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재학 연구의 의미 없는 반복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간재 성리학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나 성리학 편중의 연구 경향성의 극복을 위해서 연구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논의의 부각이 요청된다.

3) 연구 방법의 다각화

연구 주제의 다변화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수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간재학 연구에서도 연구 방법의 다각화와 더불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문헌 연구에 머물러 왔다. 특정 주제에 대한 문헌 자료의 정리와 해석, 그리고 내용 분석을 통해 연구 내용의 체계화를 이루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통용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 제시된 문인 분석의 경우에 정량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적 분포를 고찰하기도 하였지만, 이러

104) 대표적으로 간재의 핵심적인 명제인 ‘성사심제’에 대한 엇갈리는 연구자들의 평가를 들 수 있다. 이상익, 「간재 전우의 이기상호주재론과 성사심제설」, 『동방학지』 131, 2005. 참조.

한 연구 방법의 적용은 정량 분석의 제한적인 적용에 불과하다.

종이책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텍스트 분석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분석 자료를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등 연구 범위의 일정한 狹隘化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대한 『간재집』의 전 내용을 모두 검토하기 보다는 특정한 저술 내용만을 대상으로 그 함의를 추출하기 때문에 간재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적 의미를 담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자료들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자인문학 방법론이 부각되어 이러한 협애화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해 가고 있다. 제한된 자료만을 열람했던 이전의 방법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다양한 검색 도구를 통해 전 자료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의 적용은 해석에 매몰되었던 이전의 방법과는 일정한 차별점을 가진다. 적어도 한정된 자료나 제한된 시야가 아니라 전체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은 자료의 디지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전자인문학 방법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간재 및 간재학파를 포함한 근현대 유학자에 대한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이 2012년부터 구축 중인 이 데이터베이스는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간재를 비롯하여 기정진과 기우만, 송병선 등 근현대 유학자들의 문집과 문인록, 그리고 당시 간행된 유림단체의 문헌 등 광범위한 자료

를 망라하여 유학자들의 관계망을 성명, 생몰년, 거주지, 스승, 활동지역 등 기본 정보와 특정 인물과 관계된 관계 정보 등 사회적 관계 내용, 그리고 이들이 주고받은 구체적인 자료의 주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가 온전하게 구축되면 이전까지의 문헌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료에 기초한 연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으로 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관계망 이론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만큼, 간재학 연구에서 이 연구 방법의 활성화가 기대된다.¹⁰⁵⁾

한편, 간재학 연구 방법론의 다각화 이외에 연구자들의 간재학 및 근대 유학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재 및 간재 문인에 대한 지나친 顯陽의 태도도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하겠지만, 간재학과를 포함한 도학 계열 학자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의 시선이나 왜곡된 평가도 자칫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되어야 한다. 지난 십 수 년 간 간재 및 간재학과 연구에서 필요 이상으로 그들의 처세 논란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편견과 불편한 시선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연구의 피로도를 가증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편하고 편중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간재 및 문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¹⁰⁶⁾

105) 한국 유학 연구에서의 사회관계망 관련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박학래, 「사회관계망과 한국 유학 연구—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구축에 유의하여」, 『울곡사상연구』 제26집, 2013 참조.

106) 최근에 발표된 일부 저술에서 간재 및 간재학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탐색 없이 일부 연구에서 언급된 부분적인 내용만으로 거론하여 감

아울러 국제 연구에 대해서도 반성적 검토가 요청된다. 간재학에 대한 국제화는 외형상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과 일본 학자를 중심으로 발표된 간재학 연구 논문은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회 차원에서 요청한 연구라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6. 맺음말

간재 및 간재 문인과 관련된 간재학에 대한 지난 기간의 연구 성과는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간재학은 성리학 위주의 연구 편향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구 주제로의 연구 확대를 비롯하여 아직도 검토하지 못한 수많은 간재학과 문인에 대한 연구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향후 간재학 연구를 주도할 신진 연구자들의 부족이라는 연구 후속세대 육성과 관련된 문제 또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현대 한국유학에 대한 여러 분야 중 다른 분야에 비해 간재학은 꾸준히 연구물이 산출되고 있으며, 간재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학술 단체 및 연구 기관이 지속적으로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현대 한국 유학의 중심 중 하나인 간재학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발굴 및 디지털화도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이 입체적으로 구

정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저술 태도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축되는 등 연구 토대 구축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향후 간재학 연구의 발전적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

향후 간재학 연구는 이제까지의 연구내용에 대한 보다 밀도 있는 검토와 반성을 통해 학회 및 연구기관의 체계적인 기획 연구와 더불어 연구자 개인의 창의적인 개별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위한 다양한 토대 구축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간재를 포함한 간재학과에 대한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적 모색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간재학 연구는 근현대 한국유학 연구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음사, 1986.
- 배중호, 『한국유학사』, 연세대출판부, 1987.
- 유명중, 『조선후기성리학』, 이문출판사, 1988.
- 다카하시 도루(이형성 편역),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예문서원, 2001.
- 최영성, 『한국유학통사 하』, 심산, 2006.
- 한국철학회, 『韓國哲學研究』, 동명사, 1977.
- 한국철학회, 『韓國哲學史』, 동명사, 1987.
- 이기동 외, 『(증보)동유학안』(전6권), 2008.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수집 연구」(2012년도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연구계획서), 2012.
- 李炯性, 「寒洲 李震相과 그 學派 研究의 現況과 展望」, 『유교사상문화연구』 39, 2010.
- 박학래, 「사회관계망과 한국 유학 연구 -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구축에 유의하여」, 『울곡사상연구』 제26집, 2013.
- * 논문 작성에 참고한 간재 및 간재학파에 관한 개별 연구논문은 각주로 대체함.

ABSTRACT

Research Status and Tasks for Ganjae Jeon-Woo and his School

Park, Hakrae

(Kunsan National Univ.)

This paper is to summarize and analyze current research trends of *Ganjae* 艮齋 Jeon, woo 田愚(1841~1922), one of the representative scholars in modern Korean Confucianism, and his School and to suggest its prospect. Through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Korea and Japanese colonial era, *Ganjae* and his School has been the representative Confucian group to succeed the tradition of Korean Confucianism and to be so far continued the academic line with the nation-wide influence. Researchers for Confucianism have studied *Ganjae* and his School For about the past 30years. Thus, I will sketch the landscape of research on *Ganjae* and his students, which started to be highlighted after Japanese colonial era, and suggest its prospect for research on modern Korean Confucianism by examining some features of outcomes of studies on *Ganjae* and his School.

Key words: *Ganjae Jeon Woo*, *Ganjae* School, Society of *Ganjae* Studies, Learning for *Dao* in the late *Joseon* period, Modern Korean Confucianism